

2020 년 12 월 20 일 “대강절: 새로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”(계 21:1-5)

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고 나서도 주저하며 옛 옷을 벗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. 올해 교회 표어인 '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해'임을 기억하며 늘 새로움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

[1] 옛 집으로부터

옛집을 떠나 새 집으로 들어가는 이사는 살면서 가끔 하면 되는데, 성도가 옛 삶, 옛 방식, 옛 성품, 옛 틀로부터 새로운 주님 세계로 들어가는 영적 이사는 무한 반복이 요구됩니다. 종종 새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. 왜냐하면 옛 집을 처분하여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육신이 옛 집을 기억하고 돌아가기 때문이죠. 그래서 성도에겐 늘 육신과 싸움이 있습니다.

옛 삶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새로운 방식과 성품과 안목의 영적 세계가 낯설어서 두렵기 때문입니다. 또한 새 세계가 좋은 것을 보장한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결국 '두려움'과 '믿음 없음'으로 인해 새로운 영적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삶을 향해 정진하는 분들은 그 과정이 편안하고 낙관적으로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견고했던 옛 삶을 떠나 새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연약함을 느끼며 불안감 또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.

예를 들면,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경험에서처럼, 이삭에 대한 인간적 사랑의 옛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결과든 맡기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새 삶의 시작은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. 이에 두려움과나 불안이 너무 커서 거부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새 삶의 여정은 없었을 것입니다.

다른 예: 마른 하늘 아래에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필요를 못 느낍니다(옛 삶).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미래의 새 삶은 홍수 때 물 위에 떠오른 방주 안에서 시작합니다. 방주를 지을 때 갈등이 있었겠죠? 마른 하늘의 옛 삶과 방주 안 새 삶의 극명한 대조입니다.

[2] 새 삶으로 들어가는 영적 개척자

옛 삶이 기대했던 것,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 애착을 갖는 삶, 노아에게는 맑은 하늘 아래 방주 짓기를 미루고 싶은 삶을 계속하면 아들을 드리고, 방주 짓는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. 그런데, 그렇다면 아들을 새 생명의 선물로 다시 돌려받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며, 홍수가 올 때 다른 사람들과 떠내려가 방주 안에서 살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.

이와 같이 새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. 이것은 마치 개척자의 심정과 같습니다. 개척자란 현재 장소를 떠나 앞 날의 장소를 향해 가기 때문에 정신과 태도를 새롭게 하며 도전하는 사람입니다. 동료 개척자들끼리는 개척의 정신과 태도를 공유하며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 협력하는데 애써야 합니다.

이것이 영적 새 삶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너머로 궁극적 새 삶의 완성을 약속하시고 대망하게 하십니다. **4절** '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, 곡하는 것,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.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'

옛 것이 지나가고 완벽한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.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가진 어떤 것도 영원한 궁극적 새 삶으로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들 다 지나갑니다. 심지어는 죽음도 없어집니다. 이것을 확신하면 옛 삶을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 단지 지금 새 삶으로 나가려는 애씀과 용기와 믿음만이 새 삶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합니다.

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죠. 각 영역에서 옛 삶이 지속되지 못하니까 고통을 당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소망을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 옛 삶을 벗어나 새 삶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는 새 삶을 향한 여정에 정진하는 힘을 얻습니다.

오늘은 대강절 4 주입니다. 2000 년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다시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며, 만물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그 날을 향해 내 안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싸우며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예수님이라는 귀하고 귀한 소망이요, 모든 생명의 힘이 되시는 분께 마음을 다하는 열정과 신뢰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

<생각해 봅시다>

1. **계 21:4** 은 궁극적 새 삶의 완성의 한 면을 말해줍니다.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묵상해봅시다.
2. 나는 지금 살면서 옛 삶을 떠나 새 삶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초점을 갖습니까, 아니면 옛 삶을 강화하려고 애쓰는 방향에 초점을 갖습니까? 과연 나는 어떤 면에서 새 삶을 향할 수 있을지 정리해 봅시다.